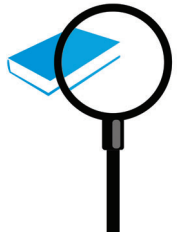


파도·햇살·푸르름 모든게 빛나는 계절, 명화 속 여름이야기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여름이라는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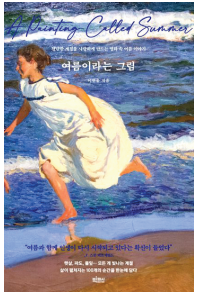
이원율 지음

성큼 다가온 여름, 벌써부터 무더위가 심상치 않다.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저마다 여름에 대한 추억은 다를 것이다. 그 추억의 이면에는 여름에 대한 풍경이 자리한다. 밤하늘을 무수히 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꿈을 꾸었던 기억, 낭방이 되지 않는 폭폭 찢는 풍나물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던 추억, 피약별 거리에서 오지 않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기억 등등 여름에 대한 풍경은 다채롭다.

그러나 여름은 설렘의 계절이기도 하다.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있고 직장인들에게는 휴가가 있다. 여행과 떠남의 계절이기에 여름은 늘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한다.

집부터 바다와 녹음이 우거진 숲, 단맛이 났고 과일 등, 여름이 선사하는 것은 다른 계절과는 차원이 다



른 즐거움이다. 특히 너울너울 춤을 추는 파도와 끝 간 데 없이 펼쳐진 하얀 모래사장, 병풍처럼 해안을 따라 늘어선 송림 등은 여름이 주는 낭만적인 장면이다.

여름과 어울리는 그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여름하면 환기되는 그림은 무더위를 저만치 밀어내기 때문이다. 올 여름은 그림과 함께 더위를 잊고 감성을 충전하면 어떨까.

미술 스토리텔러이자 '헤럴드 경제' 기자인 이원율이 펴낸 '여름이라는 그림'은 이맘때 읽으면 제격일 것 같다. 여름하면 상기되는 눈부신 햇살, 시원한 파도, 싱그러운 나뭇잎 등을 작품에서 다채로운 이미지로 만날 수 있다. 독자들이 미술로 행복해졌



빈센트 반 고흐 작 '별이 빛나는 밤'

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는 저자는 지금까지 '마흔에 보는 그림', '무서운 그림들' 등의 책을 펴낸 바 있다. 특히 2200만 회 이상인 '후암동 미술관'을 쓰며 화가의 삶과 그림을 생동감있게 풀어내고 있다.

'찬란한 계절을 사랑하게 만드는 명화 속 여름 이야기'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모두 16명 화가의 100개의 여름 풍경을 담아낸다.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의 글은 도식적이지 않고 맛깔스럽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 '파도와 햇살이 춤추는 계절'은 여름의 청량감을 선사한다. 조르주 쇠라, 클로드 모네 등 4명 화가의 작품을 만난다.

호아킨 소로아의 '해변 따라 달리기, 발렌시아'는 파란 바다와 해변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눈부신 햇살이 인상적이다. 소로아는 어린 시절 '악마의 방'인 콜레라에 걸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번곡점을 맞는다.

초창기에는 어두운 색감의 우울함을 묘사했는데 끝없이 펼쳐진 푸른 수평선에 천천히 변하면서 시작이 변한다. 소로아는 매년 여름이면 고향 발렌시아 바다에 있고 싶어 했다. 그는 언제나 지인에게 "발렌시아 해변, 그 자체가 그림입니다"라고 말하곤 했다.

2부 '눈부신 하루가 쌓이는 계절'은 프리다 칼로, 구스타프 클림트, 폴 고갱,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작품을 소개한다. 그 가운데 구스타프 클림트의 '아터제 호수'는 청아하면서도 은은한 분위기를 발



호아킨 소로아 작 '해변 따라 달리기, 발렌시아'

한다. 클림트는 오스트리아의 아터제 호수에서 줄곧 여름이면 휴식을 취했다. 그의 곁에는 뮤즈 에밀리 플뢰게가 있었다. 화면 속 호수의 색은 일상에서 보는 것과 달리 신비롭고 은은하며 아름답다. "호수를 그린 건지, 모자이크를 깔아온 건지" 아니면 추상화를 표현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호수에 들이치는 햇살은 호수를 살아 숨 쉬게 한다.

3부 '푸른 그늘 아래 쉬어가는 계절'에서는 루트비히 페르디난트 그라프의 '수영장' 그림을 만날 수 있다. 파리에서 빛을 활용한 화사한 표현법을 익힌 그라프는 색채와 형태의 해방까지 추구했다. 물속

으로 뛰어든 후 곧장 고개를 드는 찰나, 햇빛과 물방울이 뒤엉키는 아스라한 순간을 자유로우면서도 경쾌하게 표현했다.

마지막 4부 '고요한 밤하늘이 마음을 두드리는 계절'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과 조우한다. 귀를 자르는 소동을 일으킨 후 요양원에 들어온 고흐는 밤이면 병실 창문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춤을 추는 별빛, 부풀어 오른 달, 그리고 휘몰아치는 바람, 사이프러스 나무 등은 여운과 감동을 준다.

<픽비치·2만1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안녕이라 그랬어

김애란 지음

소설가 김애란이 '바깥은 여름' 이후 8년 만에 새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로 돌아왔다. 전작들에서 보여준 섬세한 감정 포착, 언어의 재치와 정서적 통찰, 사회와 개인의 경계에 대한 몰두가 신작에서도 이어진다.

작가의 다섯 번째 단편 소설집인 '안녕이라 그랬어'는 집이나 방 같은 일상 공간이 갖는 정체성과 의미를 주제로 총 일곱 편의 단편이 수록돼 있다.

첫 소설은 "사회적 공간 속을 떠다니는 감정의 입자를 포착하고 그것에 명료한 표현을 부여하는 특유의 능력을 예리하게 발휘한 소설"이라는 평가와 함께 2022 김승옥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한 '흙 파티'다. 집주인의 미감과 여유를 집착하게 하는 우아하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돈과 이웃이라는 계급적 긴장 관계를 날카롭게 포착한다.

이어지는 소설에서도 인물들이 누군가의 공간을 방문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숲속 작은 집'에서는 값싼 물가와 저렴한 체류 비용 덕분에 한 달 여행이라는 '사치'를 가능하게 한 해외의 단독주택, '좋은 이웃'에서는 정성스레 가꾸고 사용했었지만 새 집주인을 위해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 전셋집, '레몬케이크'에서는 회사를 관두고 그간 모은 돈을 전부 털어 문을 연 책방이야기를 전한다.

표제작인 '안녕이라 그랬어'에서는 얼마 전 엄마를 떠나보낸 은미가 엄마가 남긴 집에 틀어박혀 지내다 화상영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강사인 로버트와 대화를 나누던 중, 오래전 헤어진 연인과 함께 팝송을 감상하다 가셋말 속 'I'm young'이 '안녕'으로 들린다는 착각을 했던 때를 떠올린다. 연인은 맞는 가사를 알려주며 은미의 착각을 바로잡아주지만 시간이 흘러 그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 작가는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안녕'의 의미를 서늘하게 조명해 낸다.

<문학동네·1만6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몸, 스펙터클, 민주주의

김정환 지음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거리에 흐르는 민중가요가 대부분 비슷한 맥락이듯, 한국의 민주주의는 반복이다. 누군가 쓰러지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저항하고, 마침내 승리라는 이름의 변화를 이루는 과정.

반복되는 이 서사는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승리의 기억 속에서 희생된 이들을 충분히 마주해왔을까. 사회학자 김정환은 '몸, 스펙터클, 민주주의'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반복하는 장면의 이면, 특히 죽음과 결집의 이미지를 들춰낸다.

신진 연구자인 저자는 소위 '86세대'의 역사적 도취를 경계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극적인 장면 속 희생된 이들의 이미지에 주목한다. 박종철과 이한열,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까지. 한 사람의 죽음은 다음 사람을 불러내고, 그 이미지는 다시 군중을 광장으로 이끈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 민주주의가 예외적인 축제로 남았을 뿐, 점진적인 일상의 민주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책은 총 다섯 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민주주의를 제도나 관념이 아닌 살아 있는 '민'의 몸을 통해 이해하려는 시도다. 이어지는 2~4장은 죽음의 이미지가 어떻게 새로운 집합의 장면으로 이어지는지를 촘촘히 추적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반복되는 이 서사를 멈추고, 평등하고 일상적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책은 민주주의를 다시 쓰려는 시도다. 드라마틱한 승리의 장면이 아니라 살아 있는 누군가의 일상을 지키는 민주주의,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광장의 가능성을 묻는다.



<창비·2만6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노년을 읽습니다

서민선 지음

어느 날 문득, 삶의 끝이 저만치 보이기 시작한다. 한 군데 두 군데 몸이 아프기 시작한 부모님, 그리고 겨울 속 낯선 내 얼굴에서 노화의 징후는 하나둘 현실이 된다. 그렇게 우리는 '노년'이라는 긴 강을 건너야 할 때를 맞이한다.

서민선의 '노년을 읽습니다'는 노년을 맞이한 이들이 겪는 불안과 체념, 그 안에서 다정함과 연대를 찾으려는 기록이다. 저자는 시어머니의 말년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치매·질병·돌봄·죽음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을 마주한다. 이 과정에서 만난 36권의 책의 이야기들을 실제 경험과 함께 곁들인다.

책은 건강과 생존, 가족과 네트워크, 돌봄과 죽음, 노년의 삶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나뉜다. 한 사람의 노년은 단일한 문제로 요약되지 않는다. 병든 몸으로 외로이 일상을 견디는 아버지, 무릎으로 기는 삶에 적응해 살아낸 어머니, 장기 요양 속에서 또래 집단에 안도하던 할머니의 모습은 저마다의 자연과 시련을 지닌 채 남겨진 시간 속을 살아간다. "오늘 밤에 죽었으면 좋겠다"던 시어머니의 말에서 저자는 통증을 맑은 정신으로 견뎌야 했던 노인의 자존과 수치를 함께 읽어낸다. 그래서 말한다. "적당한 치매"란 없다고.

노년은 누구에게나 예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마주한 사람은 드물다. 책은 노화의 풍경을 다정하게 들춰내면서도,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묻는다. 가족 안에서의 역할 변화, 일과 소득의 단절, 친구의 부재, 돌봄의 고통,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까지. 무엇보다 책은 한 사람의 노년이 그저 개인의 몫이 아님을 말한다. 가족과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일이며, 또한 늦은 시간에도 여전히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다. 죽음이라는 끝을 향해 가는 시간 앞에서 그 하루하루를 조금 더 단정하게, 다정하게 살아내도록 북돋아준다.

<헤르츠나인·1만98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받은 광고를 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